

01 교회소식

34년, 영광의 행진

본격적인 제3도약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야제 및 기념예배와 축하행사를 갖는다.

02 특집 1_ 영광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온 만민중앙교회 34년 역사를 소개한다.

06 특집 2_ 권능

온 세상에 펼치시는 재창조의 권능

국내외 성도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전한다.

08 BOOKS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이재록 목사의 105번째 저서, 성경 인물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이 발간되었다.

만민뉴스

제758호 2016년 10월 9일(창립 특집호)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창립 34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찬양, 무용, 연주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영광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قربانك
هو مقاديرنا
سعد

가장 아름다운 천국

NEW JERUSALEM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잔치

INVITATION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 항상 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영광만이 있게 하시고, 선한 열매만이 가득하게 하셨나이다.”

1980년대_초대교회처럼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다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25일, 장년 9명과 어린이 4명이 모인 가운데 개척예배를 드리며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당시 성전은 미완공인 데다 기물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성전에서 하루 5~6시간씩 합심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매주 양 떼를 보내주

성회 인도를 잠시 중단하고 기도회로 전념하게 하셨다. 이는 이재록 목사가 7년 이상 기도해 온 하나님의 말씀, 특히 난해 구절을 풀어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주일 저녁예배가 마치면 기도원으로 가서 5일 내내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금요일에 내려오는 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받아 내린 대표적인 말씀이 ‘십자가의 도로, 책자가 현재까지 60개 언어로 출간됐다. 이후에

임을 깨달아 영으로 더욱 깨어났고 전도에도 힘써 교회는 더욱 부흥했다.

교회 개척 전에도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환자들이 치료받는 일이 많았다. 개척한 후에는 매주 표적이 나타났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자마자 치료를 받았고,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이 걷고 뛰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며, 불임



셨고, 필요한 기물도 채워주셨다.

10월 10일 창립예배 때는 100여 명의 성도로 부흥했으며, 성전도 아름답게 갖춰졌다. 이후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성전은 물론, 사택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복도까지 가득 차 계단과 화장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생겼다.

1984년 12월 31일, 두 번째 성전인 200여 평의 건물로 이전해 부흥성회를 한 번 개최하니 금세 성도들로 가득 찼다. 2년이 지나 1987년 3월에는 400여 평의 세 번째 성전으로 이전해 부흥성회를 하자 3개월 만에 가득 찼다. 이에 1991년 2월, 구로동으로 네 번째 성전을 이전하여 ‘성전 이전 기념 2주 연속 부흥성회’를 개최하였는데, 마지막 날인 금요일 야예배 시 등록인원이 1만 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개척 후 약 1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 1993년 2월에는 미국 크리스찬 월드지가 선정한 세계 50대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1983년 5월, 이재록 목사에게 외부 부흥



도 주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영의 세계도 설명해 주셨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성령의 열매’, ‘팔복’, ‘영적인 사랑’ 말씀도 풀어 주셨다.

1984년 5월, 이재록 목사의 생일이 있는 주간에는 기도원에서 내려가지 말고 3일 금식을 하며 계속 기도할 것을 명하셨는데, 금식이 끝나는 날부터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다. 1986년 5월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때는 21일 작정 기도를 주관하셔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힘썼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 주심으로 성도들이 마지막 때

부부가 기도받고 임태하는 축복을 받았다. 중풍, 암, 결핵, 백혈병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료되고, 귀신들린 사람들도 온전케 되었다.

이에 개척 초기부터 전국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부흥성회를 인도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초교파적으로 매달 집회를 인도했다. 주된 내용은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등의 말씀들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가 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8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일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야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달려온 만민의 역사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1990년대_교계, 방송 등 왕성히 국내외 선교를 이룬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롬 5:4)는 말씀대로 1990년도 가 되면서 이재록 목사는 애매하게 목사 파직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이는 큰 소망을 이루는 공의가 되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폭발적인 부흥으로 교단 내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이

나에서 말씀을 전했다. '96년 7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회 성장의 비결'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고,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다음해인 '97년 10월, 다시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연인원 8천 명이 참석했다.

1990년대에는 아프리카와 일본에도 선교의 문이 열렸다. '94년 7월, 탄자니아의 수도에서 '아프리카 교회 지도

교통사고로 만신창이가 됐던 몸이 정상이 되기도 했고, 1.2 kg으로 태어나 몸의 여러 기관 이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미숙아가 치료되어 이후 건강하게 자랐다.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 들것에 실려 온 사람이 기도를 받자 즉시 의식을 되찾고 살아났다.

1991년 교단 창설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 교회는 '98, '99년 세 차례 시함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어떠한 악에도 오직 선과 사랑으로 대응했던 행함이 공의가 되어 2000년도부터는 이전과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이 이 제단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000년대_전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다

이를 시기하여 거짓 소문으로 우리 교회를 송사한 것이다. 결국 목사 파직으로 결정났지만 이는 총회 정족수와 찬성 수도 부족한 가운데 불법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뤄 주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아무에게도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셨다. 그리하여 1991년 7월 1일,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연합) 총회를 창립하여 마음껏 오중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년 교계 행사를 치렀고, 외부에서 열리는 교계 연합성회에 우리 교회 닥시오케스트라와 성가대, 중창팀, 예술 선교단, 솔리스트, 그리고 봉사대와 안내위원까지 가서 각 분야에 충성 봉사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해마다 미국 한인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았다. '93년 8월에는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9월에는 LA 코리아타운에서 교민 초청을 받아 성회를 인도했다. '94년에는 워싱턴-볼티모어 지역에, '95년에는 LA에 다시 초청받아 갔다.

1996년 2월에는 하와이 한인연합성회 및 목회자 세미

나 세미나'를 인도했고, 세미나 후에는 마사이족 마을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 당시 영어 통역을 맡은 정명호 박사가 이듬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됐다. 이후 아프리카 54개국 영혼들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해 5천여 개 지·협력 교회가 가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1994년 1월에는 일본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11월에 이다 지역 성회를, '96년에는 신슈 지역 성회를 인도해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결과, 현재 일본에는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12개 지교회가 세워졌다.

1990년대에는 방송 선교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90년 3월, 극동아세아 방송 '먼 땅 좋은 기별'이라는 프로를 시작으로 8월부터는 워싱턴 미주 방송에, '92년 12월부터 부산 기독교 방송에, '93년 11월부터는 이리 기독교 방송에, '94년 2월부터는 청주 기독교 방송에, 5월 이후에는 워싱턴 기독교 복음방송에 설교가 나갔다. 해마다 방송 시간이 늘어나 매주 900여 명의 설교가 전파를 탔다.

또한 우리 교회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해마다 개최하여 1993년 1회로 시작하여 2004년 12회까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2000년은 기념할만한 해였다. 성경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출 15:25), 전남 무안만민교회에서 쓰고 짠 바닷물이 나오던 샘물이 단물로 바뀌는 창조의 역사를 필두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펼쳐가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 7월, '우간다 연합대성회'는 우간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반전의 대폭발로 역사됐다. 하나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을 주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회를 돕게 하였고, 한 여종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하게 하셨다. 결국 성회는 엄청난 치료의 대폭발과 함께 세계적인 뉴스채널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다. 특히 우간다는 에이즈가 창궐하던 곳이었었는데 수많은 치료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4면에 계속).

“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학개 2:9)

물이 바다 덮 무수한

2000년 9월, '일본 나고야 대성회'에서는 수십 명의 농아들을 대거 치료하는 역사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할지를 미리 알려 주셨다. 10월, 회교국 파키스탄에서 열린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는 이슬람 세력의 방해를 이겨낸 반전의 대역사를 기록했다. 후폭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파키스탄 선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현지 이삭TV를 통해 방송 선교 사역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1년 7월, '케냐 연합대성회'는 현지 방송이 성회 전날에 우간다, 파키스탄 성회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송을 내보내 줌으로 연인원 3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본격적인 아프리카 사역의 발판을 마련했다.

9월, '필리핀 연합대성회'는 태풍이 두 개나 몰려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풍을 물리쳐 주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도 나타내셨으며, 갖가지 무지개로 역사해 주셨다. 숨이 끊어져가던 사람이 기도받고 살아났으며,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이 치료되는 등 최상의 창조의 권능이 펼쳐진 성회였다.

2002년 7월, '온두라스 연합대성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중남미에 알리는 계기로 삼으셨고,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인도에서 개최된 10월, '인도 연합대성회'는 연인원 300만 명이 운집하며 최고·최대·최다의 기록을 세웠다. 초대형 무대가 간증하러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찼다. 원수 마귀 사단은 강제개종금지법을 발표해 성회를 저지하려 했지만 하나님 권능 앞에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2003년 11월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도시 건립 300주년 공식 행사로 '러시아 연합대성회'가 개최됐다. 이 성회는 향후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분야에 도움과 배경이 됐다. 오랜 세월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살던 러시아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 권능 앞에 녹아지며 수많은 치료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 러시아의 지식인들에게까지도 깊숙이 알려졌다.

2004년 10월, 기독교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남은 작은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는 유럽의 중심에서 펼쳐진 '독일 연합대성회'는 TV방송을 통해 주변나라까지 중계되어 성회 현장에서는 물론, 방송을 통해 치료받은 간증들이 줄을 이었다. 하나님께서 유럽연합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독일에도 하나님과의 답을 험게 해 주시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회였다.

12월, '페루 연합대성회'는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을 비롯하여 현지 방송사와 언론사의 유례없는 성회 홍보가 있었다. 여당 총재, 국회의원, 시장 등이 성회에 참석해 여러 가지로 돕는 등 많은 사람이 도운 점이 특별했다.

2006년 2월, '콩고 연합대성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성회를 이룰 수 있었다. 성회 장소였던 넓은 도로는 인파로 가득 찼고, 수많은 치료의 역사로 넘쳤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신앙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로 사랑을 베푸셨다. 7월, 세계적 명소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연합대성회'는 유명 위성방송과 현지 방송, 그리고 방송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 세계 200여 개국이 넘는 나라로 중계되는 기록을 세웠다. 또 뉴욕 시 상원, 하원, 시의회로부터 각각 이재록 목사의 사역과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수여하는 패와 증서를 받았다.

2007년부터는 3년간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었다. 이스라엘 동서남북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했다. 2009년 9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로 마무리된 3년간의 이스라엘 사역은 이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 지금은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2010년 10월, '에스토니아 연합성회'를 개최하게 하시면서 제3도약기의 시작과 함께 마지막 때에 맞서 싸워야 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 느낄 수 있게 해 주셨다. 또한 2010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본격적인 제3도약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셨다.



음같이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다

2010년 이후_ 공의를 뛰어넘은 사랑으로 영광의 열매로 나온다

우리 교회 제3도약기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의 권능을 통한 사역이다. 그 시작은 바로 공의를 뛰어넘은 사랑으로 인생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권능이었다.

또 제3도약기에 꼭 필요한 분야가 수많은 영과 온 영의 사람, 곧 영적 장수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성도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마음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셨다. 먼저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죄 사함의 기회를 주셨다. 성도들이 지난날의 죄악에서 돌이켜 영을 사모하며 변화되기 위해서는 공의의 값을 치러야 하는 희생과 고난이 따라야 했다. 이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공의를 뛰어넘은 사랑으로 인해 마침내 영과 온 영의 열매들이 나타났고, 영의 평준화를 이뤄 마침내 온 영의 흐름까지 타게 됐다.

이러한 영적인 흐름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펼쳐 보이시는 권능의 열매들도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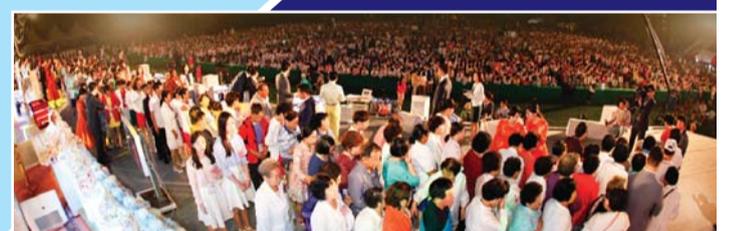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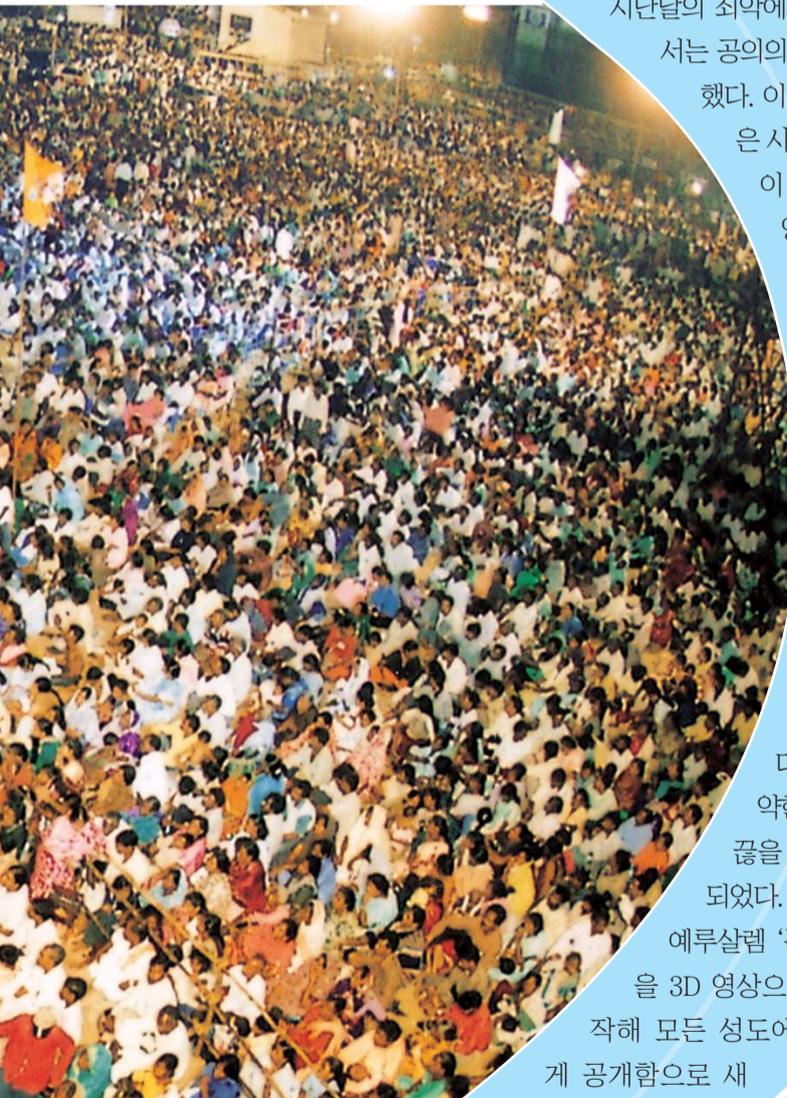
2011년부터는 하나님 근본의 빛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로라 빛을 보여주셨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영의 세계를 사모해 더 뜨겁게 달려가게 됐다.

2013년에는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덟 명의 주의 종과 일꾼들의 영이 동시에 천국과 지옥, 음부를 다녀와 간증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단번에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었다. 2014년에는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을 3D 영상으로 제작해 모든 성도에게 공개함으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더해 주었다.

2015년부터는 '온 영의 흐름'을 허락하셨다. 성도들은 자신이 채워야 할 1%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쌓기 시작했고, 영의 사람들도 결여와 부족을 채우며 더 깊은 영을 향해 달려갔다.

매년 개최하는 하계수련회를 통해 재창조의 권능 100으로 역사할 제3도약기의 본격적인 사역의 예고편들을 보여주셨다. 더욱이 2016년 하계수련회 때에는 기온, 습도, 비, 바람, 햇빛 등이 조절돼 필요에 따라 최적의 날씨가 만들어졌다.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눈과 관련된 질병들이 무더기로 치료됐으며 각색 질병과 연약함도 무수히 치료되어 영광 돌렸다.

지금의 온 영의 흐름을 맞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신뢰와 사랑'이다. 목자와 성도들을 이러한 관계로 만드셔서 제3도약기에 상상할 수 없는 사역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재창조의 권능으로, 성결의 복음으로, 전 세계와 교계를 덮어가며 영광의 큰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만민의 본격적인 제3도약기에 모두가 주인공으로 나오길 바란다.



전 세계에 펼쳐지는 끝없는 재창조의 권능!

Europe

**“어릴 때부터 90도로 굽었던 등이
손수건 기도로 똑바로 펴졌습니다”**

요람 조지오 형제 (일드프랑스만민교회)



저는 어릴 적부터 통합운동장애로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몸이 굽은 상태로 걸어야 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불안장애까지 생겨 검사 결과, 아스퍼거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지요. 많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들과 상담하고 입원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어머니의 전도로 2016년 6월, 일드프랑스만민교회에서 열리는 치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도중 한국 만민중앙교회에서 오신 강사님은 제게 여러 번 오셔서 머리와 등에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기도해 주시며 믿음을 심어 주셨고,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제 몸은 눈에 띄게 펴짐으로 마침내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바로 걸어서 차에 탔고, 이제는 쇼핑도 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으니 꿈만 같습니다.



Korea

**“자폐증으로 정신지체 1급이었던
아들이 기도를 받은 뒤
정상이 되었습니다”**

김준옥 집사 (만민중앙교회)



아들이 세 살 되던 해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어느 날 교사로부터 아이 상태가 예사롭지 않으니 소아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언어지연, 분리불안, 양육자혼동, 애정결핍, 과잉행동이 나타났고,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년 이상 치료 수업을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자폐증으로 정신지체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을 시작한 뒤에 일을 핑계로 주일 성수조차 하지 않을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자폐증은 부모의 죄로부터 오며 부모가 성결돼야만 치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내와 함께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예배 시에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을 때마다 민성이를 위해 기도를 받았지요. 그러자 민성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 보기 어려웠던 아이가 선생님, 친구들과 어울릴 뿐 아니라 즐겁게 지냈지요.

아이의 변화는 제 신앙과 맞물려 이뤄졌으며, 제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며 기쁨과 감사의 단을 쌓아갈수록 아이의 상태도 급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이전에 하지 못하던 생각과 행동을 하며 마음과 생각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후 취학 전 자폐증상 검사에서 언어 표현 능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학적 능력과 공간지각능력에서는 오히려 일반 아이들 이상이어서 의사들도 너무 놀라웠지요.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해 이제 4학년이 된 민성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고 활달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아동주일학교 예능부 찬양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srael

**“권능의 기도로 수년간 가뭄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다니엘 로젠 목사 (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회장)



2009년 당시 이스라엘은 수년간의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침 9월에 이재록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인도하시던 중 이스라엘에 많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성회가 마친 다음 날부터 비가 내렸고, 일주일 뒤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후 제가 한 차례 더 기도를 한국에 요청해 10월 4일 주일 대예배 시 이재록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해 주심으로 그 다음날부터 이스라엘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최대 영자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와 이스라엘 히브리어 유력 주간지 ‘콜 하이르’, 그리고 ‘하레츠’(haaretz.com), ‘인빅토리’(inictory.org)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Africa

**“GCN방송으로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에이즈가 치료되었습니다”**

밤파 셀라 오메르 성도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만민교회)



저는 에이즈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킌사사만민교회에 출석하는 이모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에 대해 듣게 되었고, 치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약을 끊고 각종 예배 및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할 때마다 몸에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2015년 8월, GCN방송을 통해 ‘만민 하계수련회’ 녹화방송을 시청하며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불로 몸 전체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다리의 심한 통증이 사라지고 천근만근이던 몸이 가벼워졌으며, 어지러움증도 없어졌지요. 이후 반점과 상처가 싹 사라지고 예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가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종식되었습니다”**

세바스찬 임페토 팡고 집사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 민주당 대표)



2014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 에쿠아퇴르 주의 한 마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였습니다. 당시 에쿠아퇴르 주지사였던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퇴치하라는 특명을 받고, 9월 16일 한국의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요청 서신을 보냈습니다.

9월 21일,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날부터 놀랍게도 사망자 수는 급격히 줄었고, 새로운 발병 건수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후 에볼라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강도 7.8의 네팔 대지진에서 온전히 지킴받았습니다”

이혜천 목사 (네팔만민교회)



2015년 4월 25일(토), 네팔에 80년 만에 찾아온 강도 7.8의 대지진이 무려 1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나라의 특성상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던 저와 성도들은 대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성전이 있는 5층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마치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휘청대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1시간가량 건물 바깥 도로로 대피했다가 다시 성전에 모여 기도회로 대체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몇몇 성도들과 함께 GCN방송으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였지요.

다음날인 주일, 당회장님께서 한국에서 저희 네팔만민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뒤 여진과 큰 비, 눈사태 등을 예상한 언론 보도와 달리 저희는 모두 지킴을 받았지요. 집 앞 큰 힌두사원이 무너져도 성도 집 안의 병과 그릇들은 하나도 파손된 것이 없었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둔 힌두사원이 사라져도 성도가 일하는 가게는 무사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집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성도들 가정만은 지킴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가친척과 당시 208개 지·협력교회들도 전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디. 할렐루야!



Asia

“나팔관이 막혀 임신할 수 없었던 아내가 사진 기도를 받은 뒤 결혼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시프 나지르 목사 (파키스탄 이삭TV 국장)



2001년 결혼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저희 부부는 조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아내의 나팔관이 막힌 것이 불임의 원인이었지요.

그러던 중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이 목사님의 '사랑장', '믿음의 분량' 등의 설교를 대하면서 많은 영적인 깨

우침을 받으니 잉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010년 11월, 저희 부부는 이재록 목사님에게 잉태의 축복을 위해 기도받고자 한국에 사진을 보내 시공 초월한 기도를 받았습니디. 그 뒤 놀랍게도 아내가 임신이 되어 결혼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또 다시 잉태하여 지금은 아들이 둘입니다. 할렐루야!

“농아로 태어난 제가 이제 소리도 듣고 말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레우 카 록 형제 (말레이시아 셀레오만민농아교회)



2014년 3월, 예배에 참석하여 수화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양쪽 귀에서 난생처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아로 태어났기에 처음 듣는 생소한 소리들이 무척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낯설고 이상했지만 마음은 참 행복했지요.

그러던 2015년 3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첫날, 화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축복기도를 받은 뒤에는 이전보다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해 8월, '만민 하계수련회' 시에는 양쪽 귀가 더욱 잘 들리게 됐을 뿐 아니라 지금은 입도 열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실로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이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소멸되었습니다”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 (미국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



2015년 10월, 저는 허리케인 '호아킨'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서신을 통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당시 허리케인은 4등급으로 4개 주를 이미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혔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뉴욕으로 북상해 오는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10월 4일 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님께서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자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태풍의 세력이 신속히 약화되어 현지 시간 10월 7일 오전 11시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North America

Oceania

“기도받은 후 폭우로 인한 큰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카 쿠퍼 박사 (WCDN 호주 디렉터)



2011년 1월, 호주에 큰 홍수가 나서 퀸즈랜드 주에 있는 브리즈번 강의 수위가 8미터 가량 차오르면서, 빌딩들 아래가 물에 잠기고 강 인근과 시내 등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밀물과 댐 방류가 겹쳐서 24시간 내에 심각한 재난이 예상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지요.

저는 1월 12일, 한국 이재록 목사님에게 메일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호주 디렉터로서 만민중앙교회와 교류하면서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권능에 대해 들은 바 있었기에 믿음으로 요청한 것이었지요.

과연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놀랍게도 폭우가 그쳐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outh America

“20년 만에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롤리나 가르시아 에레라 자매 (콜롬비아만민교회)



난시와 근시로 인해 저는 아홉 살 때부터 안경을 늘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했고, 행사를 위해 성전 꾸미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꼭 체험하리라는 믿음으로 3일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2016년 7월 17일 집회 시, 강사님은 설교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을 제 양쪽 눈 위에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양쪽 눈이 타는 듯이 매우 뜨거웠지요.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강사님의 기도가 마쳐진 뒤 눈앞이 흐리게 보여 안경을 벗었더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재록 목사 105번째 저서 발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사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철없던 나를 깨뜨리시며 지혜를 주사
매 순간 이겨 가게 하시고
조용할 때와 말할 때를 알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사
그 마음을 사게 하시며
아버지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으신
아버지, 내 아버지.

늘 내 곁에서 위로하시며 인내하게 하시어
오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
나의 아버지.”

- 본문 중에서

노예에서 죄수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국의 총리 자리에 오른 사람,
대기근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요셉!

그의 인생 여정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자 통로였다.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 책은
요셉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세밀화처럼 그려내며
형통한 삶의 비결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을 제시한다.

- part 1 히브리 소년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다
- part 2 요셉의 선한 지혜,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리다
- part 3 애굽 총리 요셉, 하나님 언약의 통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의 열두 아들 대에 이르러 민족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들어 주변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4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요셉은 어떤 연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기보다 늘 자신을 돌아보았고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해 주셨다. 이것이 요셉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힘이었다.

이재록 목사 성경 인물 시리즈 1, 2, 3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 되기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생애!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 속에 녹아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요셉의 생애, 그 속에서 찾은 형통한 삶의 비결!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광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흥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상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410-419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언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2)863-9857, 010-2208-5719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산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